

필자가 멜라민(melamine)이 국내식품에서 검출되어 이슈화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몽골 출장 중 뉴스를 통해서였다. 몽골국립대학의 식품학 담당 교수가 급하게 중국산 분유가 몽골로 바로 수입되어 많이 팔렸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며 필자에게 묻는 것이 아닌가! 그때서야 국내 상황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이제 멜라민 사태가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인자들이 출몰하였다. 갑자튀김류의 아크릴아마이드, 통조림의 퓨란, 분유의 사카지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물질(異物質) 사건까지 정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여러 식품 안전 사태와 비교해 볼 때 이번 멜라민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위해인자라고 할 수 있다. 미리 말해 두자면 이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탐욕의 결정체이다. 그럼 왜 그럴까? 최근 문제시된 식품위해인자 중 이물질(異物) 사건은 물리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생산자나 유통업체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방지할 수 있는 실수라면 HACCP의 강화로 예방할 수 있다. 사카지균은 미생물적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나 소비자 환경적 인자로 인해 특별한 식중독균이 성장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이다. 아크릴아마이드와 퓨란은 화학적위해요소로 식품의 기호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 결과물이다.

멜라민은 절대 식품원료나 첨가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화합물이다. 따라서 당연히 식품내 규제도 없다. 공업용화합물로 암모니아와 탄산



불자 세상보기

이 광 근
동국대 식품공학과 교수

멜라민 공포와 식품안전

가스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요소비료를 열처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주로 염료나 플라스틱 접착제로 많이 쓰인다. 이 화합물이 분유를 포함한 유제품에 첨가된 것은 이것이 가진 질소원소 때문이다. 멜라민은 1분자당 6개의 질소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질소함량이 높다. 중국 우유생산업체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물을 섞어 부피를 늘인 불량우유의 품질 합격점인 질소함량 26%를 달성하기 위해 멜라민을 첨가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멜라민은 절대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화합물

로 신장결석 등 치명적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다. 9월 22일까지 5만명 이상이 발병되고 그중 입원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만2800명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나 영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중국영아 4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멜라민의 독성과 섭취량에 대해선 여러 학자들이 건강한 어른의 경우 국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과자류를 어느 정도까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필자도 동의한다. 복잡한 용어와 수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주식(主食)이 아닌 이상 건강한 어른

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아와 어린이의 경우 식품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지나치게 싸거나 선명한 색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 피해달라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도 한 과자제품에 대한 위해도도는 낮다고 할 지언정 현재 얼마나 많은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될지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의 위해도도는 신중하게 평가돼야 한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필연적으로 앞으로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국내 식품생산업체들은 멜라민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수입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보다 안전한, 다시 말해 고급화된 재료를 수입하기 바란다. 식약청 담당자들은 현재 매우 바쁘고 피곤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미 멜라민에 대한 경고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대상 식품류를 지저분히 모니터링 및 제발방지를 위해 준비했었어야 한다. 이제 식품안전 이슈는 문제가 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 어디선가 식품안전의 이슈가 터졌다면 이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필자는 식약청에 당부하고 싶다. 당연히 이를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사항은 충분히 정부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社說

‘아름다운 동행’ 첫발을 떼다

조계종이 기부문화를 이끌어갈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출범시켰다. 이 재단은 그 이름에서 시사하듯 종생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체종생의 상생은 일체제불의 공생이다. 부처님께서 두두물물에 깃든 불성을 강조하셨고 일체제불의 마음이 일체종생의 마음과 돌이 아남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혼란한 것은 탐욕과 집착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을 불태우는 탐욕과 집착이 외부의 모든 관계들로 연결되며 갈등과 불화를 낳는 것이다. 개인의 탐욕과 집착이 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사회와 국가의 이익은 국가와 민족간의 분쟁으로 이어진다. 인간 세상의 끝없는 갈등은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마음을 먼저 맑게 해야 한다. 개인이 맑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적 상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조계종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바로 열 사람과의 소통과 동행으로부터 온 세상의 정토를 기대하게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조계종은 이 재단을 통해 다양한 목적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 시키기 위해 각종 캠페인도 펼쳐 나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재단의 이 같은 행보를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개인의 탐욕과 집착을 흘려 버리는 대승보살의 마음을 이 재단의 사업에 동참하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출발한 ‘아름다운 동행’일지라도 불자들의 적극적 동참이 없으면 ‘외로운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원수 같은 남편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가벼울 수가 있나요.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김씨는 신기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칠순을 넘긴 김씨는 결혼 후부터 거의 평생 남편을 미워하고 살았다.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항상 다툼 만큼 성격이 맞지 않았다. 더구나 남편은 돈을 제대로 벌어서 적이 없었다. 젊은 때는 바람이 나서 몇 년이나 소위 말하는 떠돌이를 차리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평생 부부라는 허울만 좋을 뿐 마음은 원망만이 가득했었다. “오즘 시대 같았으면 벌써 이혼했지요. 흥,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도 고마워해야지요!” 김씨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예전에는 이혼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아들 때문에 아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참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한 집에 살아도 남보다도 싫었다고 한다. 각 방 쓰는 것은 물론이고 뽀뽀 싫었다.

“내 인생이 인간 때문에 다 망친 것 같아서 항상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중년 이후부터는 완전 체념 상태였고 기대하는 것도 없었다.

육십이 넘어 김씨는 절에 다니게 됐다. 인연법을 알게 됐지만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어느 새 십년이 지나 칠십이 넘어 나이가 됐다. “나도 얼마 있으면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다음 생애는 죽어도 이 사람과는 만나기가 싫었다.

“번뇌 벗으니 출옥한 느낌”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⑧4 마음의 짐을 내려 놓으세요

고민고민하다가 스님에게 갔다. “스님, 부처님 법으로 보면 다 제 맞고 응서해야겠지만 죽어도 안 되네요.” 스님은 의외로 “그럼요. 응서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스님, 이대로 죽으면

마세요.” 처음엔 죽기보다 싫었다. 그런데 어차피 각 방을 쓰니 남편은 알 리도 없고 해서 시작했다. 밤마다 <금강경>을 읽은 후 남편이 자는 방 쪽을 향해서 삼배를 했다. 기분이 나쁘다가도 “그래, 스님이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부처님께 하는 거라고 하셔서”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한 달째가 되자 절할 때는 저주하던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달이 넘어가자 절할 때만큼은 미운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마주했는데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부처님이 문득 느껴져서 깜짝 놀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밤 그 생각을 하며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나왔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한참 울게 됐다. 백일이 지났지만 김씨는 계속 삼배를 했다. 그렇게 일 년이 넘자 이제는 밤마다 삼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김씨는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밀던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었다. 그

자유인이 되세요

러면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세상에 이렇게 가벼울 수가. 마치 천근같은 무거운 덩어리를 지고 있던 것 같았다. 스님은 “그거 보세요. 처사님이 아니라 보살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요. 결국 미운 마음은 보살님 것이었으니까요”하며 기뻐하셨다.

평생 미워하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을 줄은 몰랐다. “이제 보니 사람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이제 줄 알았으면 진작 그만두는 것이었데요.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렇게 미워하지나 말 것을.” 김씨는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고 한다. “저는 이제 칠십 중반이 됐어요. 이 나이에 주체남긴 해도 젊은 사람들에게 꼭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평생 기다리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내려놓으라고요. 제발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스스로 마음의 사슬에 묶어 있었음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한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 심정이라며 활짝 웃는 김씨를 보니 부처님 말씀이 떠오른다. “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십시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자살방지 위해 불교계가 나설 때

또 한 사람의 인기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자살은 누가 뭐래도 불행한 죽음이다. 그럼에도 자살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기연예인의 자살 소식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끝장’을 보는 유일한 길이라는 오해와 착각이 지나치게 만연돼 있다. 우울증이나 정신착란 같은 병적인 증세라 할지라도 조금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자살만은 예방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자살문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회병리로 인식된다.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살을 줄이는 빠른 길이라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자살예방 활동은 불교계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불교야말로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가르치는 종교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윤회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삶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 갖는 숭고한 의미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시키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열어 주는 종교라 자부하는 불교가 더 이상 자살의 사회적 확산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각 상담센터와 복지시설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각 종단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 모색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한다.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뻐뻐,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두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 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클레스테롤함량, 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도,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열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계엄을 아실 수 있습니다!

△ POLA 팔찌
△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 KBS일요스페셜 (07.9.30) 방영 / MBC통일전망대 (06.11.22) 방영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 내일신문, 조선닷컴, 동아닷컴 보도

전일주식인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동가게건물 205호
☎자매점: 파워뷰, 골반사랑101, 척추사랑(산선대)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벌코에이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코에이 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코에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염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불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코에이 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딱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편찮지만 무릎과 팔꿈치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람에게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오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 x 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딱

아이가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와 연구가 잇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보는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